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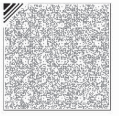
제2355호 2024. 6. 30. 연중 제13주일 · 교황 주일

제1독서 : 지혜서 1,13-15; 2,23-24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8,7.9.13-15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5,21-43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리타 쿴!”
마르 5,41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화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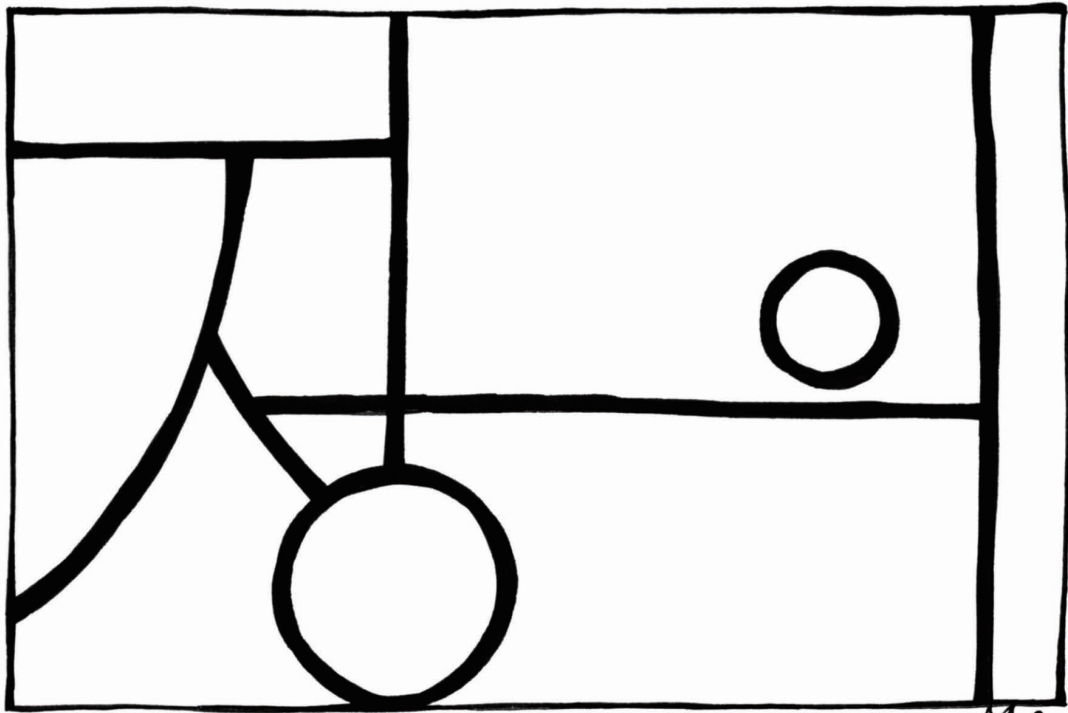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영성 체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말씀그림



2024 M

●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하느님께서 ○ ○ 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 ○ 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 ○ 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 ○ 이 다 이롭고 그 안에 ○ ○ 의 독이 없으며

○ ○ 의 지배가 ○ ○ 에는 미치지 못한다.

○ ○ 는 죽지 않는다. 정녕 하느님께서 인간을

○ ○ ○ ○ 로 창조하시고

당신 ○ ○ ○ ○ 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 제1독서 <지혜 1,13-15;2,23-24>

●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믿기만 하여라.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났네요.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고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 주일이고, 어제 6월 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2천여 년 전 세워진 우리 가톨릭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베드로 사도 축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 주일은 교황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 헌금을 하는 날이지요. 우리 친구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17지구 화곡2동 성당
이용일 펠릭스 신부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해 동안이나 아팠던 여자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의 병을 낫게 해 주셨어요. 여자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 사이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하시며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 일어서서 걸어 다녔답니다! 두 사람은 굳은 믿음으로 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가난한 형제들의 궁핍을 채워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총을 내려 주세요.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미사와 기도를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굳은 믿음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하기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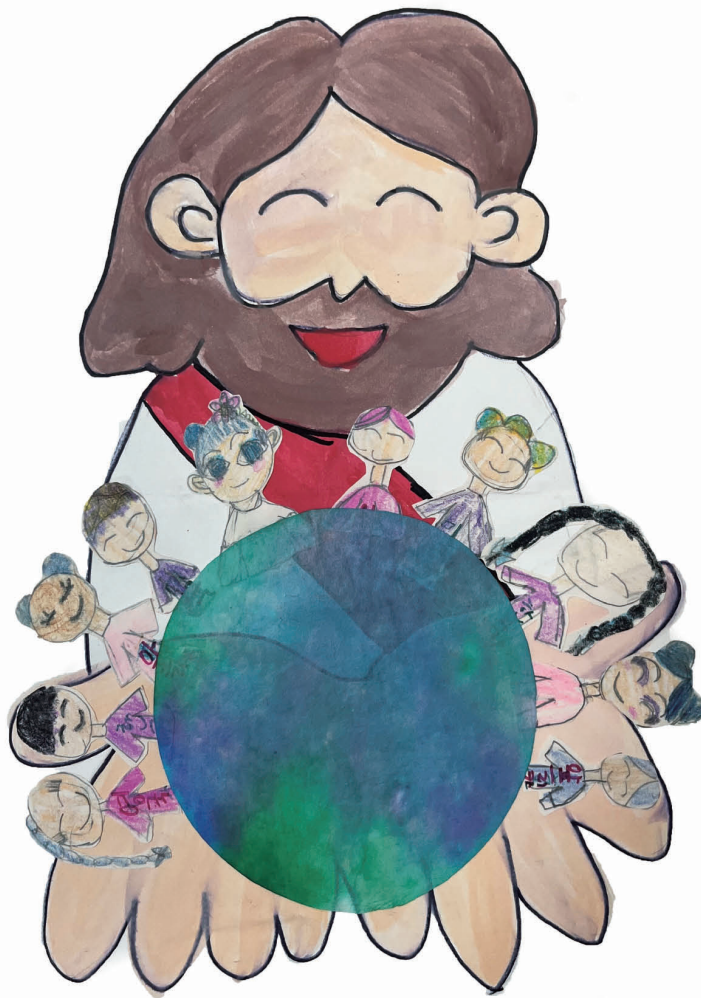
소금통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며, 가톨릭교회의 첫 번째 교황은 누구일까요?

- ① 가브리엘 ② 미카엘 ③ 베드로 ④ 요한



✧ 제 목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두 하나
✧ 수상자 박하윤 미카엘라 (역촌동 성당 3학년)



지난 **작은마음 잔치**의 모든 작품이 훌륭했지만, 미카엘라 어린이의 작품은 그중에도 특별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미소 짓고, 지구 식탁에 둘러앉아 기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올해 **작은마음 잔치**도 우리 친구들도 멋진 상상력으로 가득차면 좋겠어요!